

# “기존 시민 지키자”... 여수시, 생활 체감 정책 강화

## 최근 5년간 연평균 2500명 ↓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집중 청년 임대·월세 특별지원 등 맞춤형 임신·출산 정책 수립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여수시가 계속되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전입자에 대한 지원보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 체감형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1998년 통합 당시 33만명이던 인구는 현재 6만2000여명이 감소하며 지난해 말 26만 7816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연평균 25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유출 및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적 인구 부양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먼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도 3월 중 모집한다. 관내 거주 또는 전입 예정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이다. 지난해 17호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5호를 공급한다.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를 1인당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내달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사업은 모두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소득 여건에 맞춰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 정책에도 주력하고 있다.

관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6.1% 증가했다. 이는 1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이와 같은 증가폭에 힘입어 시는 올해부터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과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모와 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오는 8월 중 웅천동 여수예울병원 내 ‘전남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한다.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해 연령, 혼인 여부, 소득수준 등을 기반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9개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1인 가구는 12만 8306세대로, 전체 세대의 41.5%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중 60세 이상 1인 가구는 2만 5752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 돌봄 지원으로 ‘어르신지킴이단 운

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노노케어(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인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과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마련했다.

이외에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안심택배함’과 ‘여성안심콜센터’, ‘여성안심귀갓길조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적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청년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음식점 입식 테이블·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 이용 편의·외식 환경 개선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외식 환경 개선을 목표로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입식 테이블은 설치 비용의 5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경사로는 입식 테이블이 설치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월7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업소 현장을 방문해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문의는 식품위생과(061-659-4238)로 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 관광객 모두 편하고 안전하게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관내 음식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내달 7일까지 접수

여수시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내달 7일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 활동 촉진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정책 사업 등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00만원이며, 사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며,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보텀e’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과 최근 사업추진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오는 3월 중 전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험과 역량 있는 유관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에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스마트 농업경영체 육성’ 교육생 모집... 선착순 20명

여수시는 농업인의 온라인 경영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스마트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제작과 활용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오는 3월24일부터 28일까지 총 5회차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

영농팀을 방문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yeosu.go.kr/agr)에서 확인하거나 기술보급과(061-659-447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작물 생산기술도 중요하지만, 시각적 정보를 활용한 자가 농산물 홍보와 판로 확보가 다음 시대 농업의 핵심”이라며 “스마트 농업경영체 육성 교육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는 최근 학동 선소사가 일원에서 ‘음식·숙박업소 3정(정겨운 미소, 정갈한 음식, 정직한 가격)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제공

## 음식점 3정 실천 운동 전개

### 섬박람회 대비 친절도 개선 위해

여수시는 최근 학동 선소사가 일원에서 ‘음식점 3정(정겨운 미소, 정갈한 음식, 정직한 가격)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친절 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날 여수시위생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70여명은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과 병행해 부

당요금·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 친절 한 손님맞이,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권역별 위생점검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식점 3정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해 친절한 외식·숙박업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장기 근속 유도·임금 격차 완화

여수시는 청년의 정규직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청년에게는 최대 1500만원을,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을 4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소재하고 정규직 채용 1~4년 차 청년(18~45세)이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

로, 기업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7일까지 문서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3년 차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도 올해 2~4년 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 제외 사유가 없더라도 전년도 참여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경제

일자리과(061-659-3623)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52개 기업, 178명에게 7억6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